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 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예심) 2026년 4월 7일(화) ~ 5월 6일(수) / 온라인 심의
 - (본심) 2026년 5월 15일(금) 14:00 ~ 17: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연옥, 오판진, 이재진, 전지니, 하동기, 황정은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사업은 우수 대본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동시대성과 다양성을 갖춘 창작자를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년 예술현장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지원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극분야는 올해 총 277건이 신청접수되어 전년도 신청건수가 231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신청작품 중 행정결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작품을 심의위원회는 '작품성(80%)', '무대화 가능성(20%)'을 심의 기준으로 전수 검토하고 토의하였습니다.

지원심의는 예심과 본심의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 6인이 각 그룹별로 심의 대상 작품을 전수 검토하였고, 그룹별 예심 결과를 통해 결정된 본심 대상 21편의 대본을 보다 세심히 검토하고 최종 토의를 거쳐 총 8편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모든 심의 과정은 철저하게 지원자 비공개(블라인드) 심의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예심을 포함한 사전 평가 과정에서는 위원들 간 정보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극작, 연출, 평론 분야에서 구성된 심의위원 6인은 소재가 갖는 동시대성, 극적 구성, 무대화 가능성이라는 지점을 염두에 두고 평가 및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품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주제 및 구성적인 면, 기 발표 작품과의 차별성, 오늘날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동시대성을 비중 있게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연극이라는 장르 특성을 감안해 무대화의 적합성 및 효과, 그리고 '공연' 대본으로서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각 심의 단계에서 심층적으로 대본을 검토하면서, 극장에서 꼭 만나고 싶은 대본이 많았음에도 한정된 지원규모로 인하여 선정작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분야 신청작품의 경향을 살펴보면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오늘날을 다시 사유하거나 한국 근현대사 속 국가 폭력이라는 문제를 성찰하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동시대의 전쟁과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작금의 현실에 질문을 던지거나 개인의 일상을 비롯해 가족 문제, 소수자 간 관계성이라는 주제에 천착한 경우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라는 지점과 관련하여 이주, 귀어, 노동 문제 등을 극화한 경우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작품 상당수가 동시대에 필요한 윤리와 책임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기존 연극 무대에서 잘 만나지 못한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비롯해 다양한

규모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던 점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완전하게 봉합되지는 않을지라도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관점을 확보하거나, 같은 소재를 다루더라도 기발표작과의 차별화를 모색하는 시도가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소재의 제한이 사라지고 장르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제작 환경을 감안 하더라도, 극 전개 과정에서 무대화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극장 안에서 관객과 만났을 때의 파급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제 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사건을 다룰 때 새로운 시선이나 세계관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미래 사회가 설정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소재와 설정이 흥미로울지언정 극의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서둘러 이야기를 마무리하거나 자극적인 사건을 나열하면서 극을 이어가는 대본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집단을 대상화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경우도 발견 하였습니다.

대본을 쓸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흥미로운 소재나 착상이 곧 의미 있는 대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심의위원 일동은 창작 시 이야기의 동력을 어떻게 유지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대본공모 사업이 공공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흥미로운 소재와 극작술이라는 측면 외 작품의 공공성,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신청접수에도 한정된 지원규모로 보다 많은 우수 대본을 선정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모든 지원자 분들이 창작을 이어 나가기를 바라며, 더 다양하고 폭넓은 작가 지원 제도가 우리 연극계에 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대본공모 사업에 응모해주신 지원자 분들께 깊은 감사와 진심어린 응원을 전합니다. 극장에서 뵈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일동